

탁상훈 기자 if@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7.11.18 23:53 / 수정 : 2007.11.19 09:4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18/2007111800614.html

눈치 빨라진 디지털

사용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해 상황에 맞게 작동하는 전자제품이 늘고 있다. 청소 도중 가구가 근처에 있으면 속도를 줄여 가구 외관 손상을 막는 자동 로봇 청소기, 인물을 촬영할 때 웃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저절로 사진을 찍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가전 제품이 기능과 디자인에 이어 이젠 '자동화'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최근 출시된 아이로봇사의 로봇청소기 '3세대 룸바'는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상황에 맞게 청소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일단 청소해야 할 방과 거실을 한 차례 돌며 공간 넓이를 파악한 후, 작동 시간을 스스로 설정한다.

벽이나 가구에 닿기 직전, 적절한 작동 상태로 변신하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평소에는 반원을 그리며 이동하지만, 벽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벽에 밀착, 일(一)자 형태로 움직이며 벽 아래쪽 먼지들을 털어낸다. 반면 가구 앞에서는 저절로 속도를 줄여 부딪힐 때의 충격을 줄인다. 룸바 마케팅 담당 손병욱 부장은 "청소 도중 가구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올림푸스한국이 내놓은 디지털 카메라 'FE300'은



아이로봇의 자동청소기 '3세대 룸바'

‘스마일 샷’이라는 기능이 돋보이는 제품. 별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촬영하려는 인물이 웃는 순간 세 차례 연달아 저절로 사진 촬영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올림푸스한국 윤훈혁 팀장은 “디지털카메라에 사람 얼굴 근육의 변화와 치아의 노출 상태를 인식하는 센서가 내장돼 있다”면서 “촬영자나 촬영 대상자의 수고를 동시에 덜어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1200만 화소급 고성능 제품이지만, 무게는 115g에 불과하다.

◆화면밝기와 스피커 소리도 자동조절

오디오·비디오 제품 역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 인식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무선 홈시어터 ‘HT-TWQ120’은 스피커와 청취자가 앉아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자동으로 인식, 청취자에게 최적화된 소리를 들려주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청취자가 전후방 5개 스피커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이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해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예를 들어 청취자가 앞쪽에 있으면 앞쪽 스피커의 소리를 줄이는 대신 뒤쪽 스피커는 조금 키우는 식이다. 이 제품은 사용자 중심 설계와 광택 처리한 검은색 외관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아 세계 가전 전시회인 ‘CES2007’에서 혁신상도 받았다.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FE300’

LG전자의 ‘엑스캔버스 브로드웨이TV’는 주변의 밝기나 빛을 인식,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아이큐(eyeQ)’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시야각이 넓은 화면을 사용, TV를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색감이 달라지지 않게 설계했다. 빠르고 화려한 색채를 잔상 없이 보여준다는 의미로 브로드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덴마크 뱅앤올룹슨사의 고화질 LCD(액정화면) TV ‘베오비전7’도 실내의 밝기를 TV 센서가 인식, 그에 따라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주방 가전 중에 대우일렉이 최근 내놓은 ‘클라세 냉장고 F-T69AGRR’은 주변이 어두워지면 냉장고 외부의 LCD 창도 저절로 어두워지는 기능을 갖고 있다.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소량이지만 전기 절약 효과도 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자동 인식 센서 덕에 밤이 되면 냉장고 모터도 천천히 돌아, 쾌적한 수면을 도와준다”고 말했다.



자동감지기능-올림푸스한국 디지털카메라 'FE300'



자동감지기능-자동청소기'3세대룸바'



자동감지기능-뱅앤올룹슨lcdtv '베오비전7'

[크게](#) [작게](#) [프린트](#) [닫기](#)

Copyright (c) 2006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